

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 44호)

# e-날씨TT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제 44호)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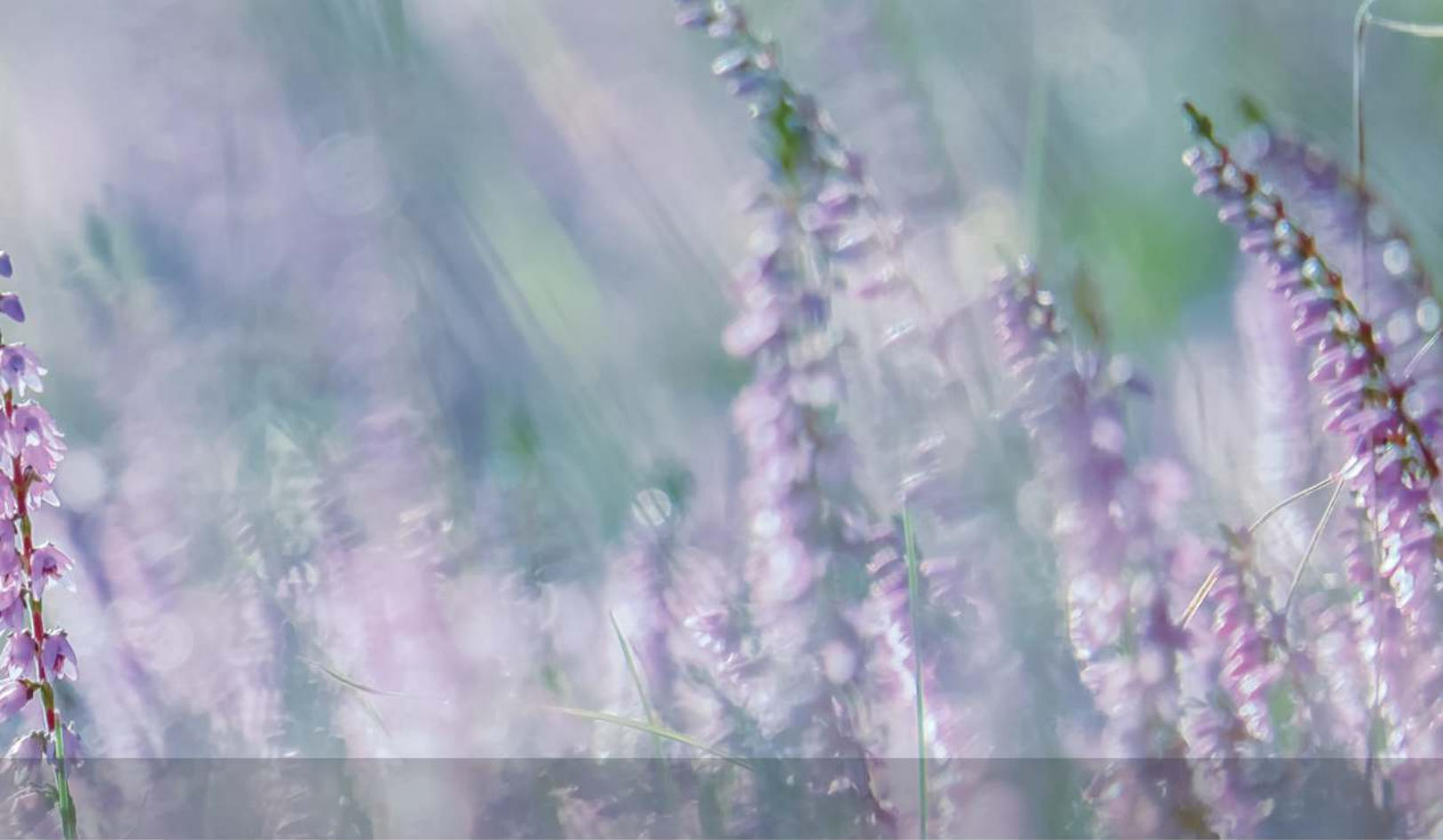
## 기상청장 기고

- 05 / '미리 닳는 경고'로 선제적 호우 대응
- 07 /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새로운 기준
- 09 / 탄소중립 시대, 기상정보가 이끄는 태양광의 미래
- 11 / 달라진 처서, 변화하는 계절의 기준



##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3 /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9 /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6 /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1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서비스

43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4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6년 8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윤기한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김효원(기획운영과), 남미선(예보과), 김지희(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병준(기후서비스과), 김연직(관측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기획운영과), 남미선(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민규(관측과), 박동영(관측과)

박성진(관측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임나영(예보과), 임유진(기후서비스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미리 닿는 경고'로 선제적 호우 대응

위험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필요,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동안 내리는 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하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과거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랫동안 내리던 비는, 이제 좁은 구역에 짧은 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어느 동네는 안타까운 침수 피해를 겪고, 조금 떨어진 이웃 동네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낮선 상황을 지금의 우리는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언제 어디로 쏟아질지 모르는 국지성 호우 앞에서는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경고를 들은 뒤에 대피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호우 대책은 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수습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은 기상청에서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국민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전달하려는 치열한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상청은 신속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 기상레이더와 위성, 지상 관측 자료를 24시간 빈틈없이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수치모델 예측자료와 인공지능(AI) 기술도 함께 활용해, 급격히 발달하는 비구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여러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고민하며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므로, 결코 단순하지 않고 한계도 있다.

따라서 예측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상청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올해부터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호우 알림 정책을 새롭게 시작한다. 바로 기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한 단계 뛰어넘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기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시간당 50mm의 강수량과 함께 3시간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되거나, 시간당 72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을 때 즉시 인근 지역으로 발송되었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호우가 쏟아질 때 발송된다.

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시간당 강수량이 85mm와 15분 강수량이 25mm가 동시에 관측되거나, 시간당 100mm가 관측되었을 때 발송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울리는 상황은 단순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기상청이 보내는 가장 다급하고 간곡한 호소이자 최후 단계의 경고이다.

안타까운 지난 인명피해 사례들을 돌아보면 2022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은 단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갈랐던 만큼, 이 다급한 알람이 울린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호우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대비와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방재 관계기관에서는 배수펌프장과 빗물받이 등 수방 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지역의 통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

기상청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소통하여 현장의 대피와 통제가 조금도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강해지고 국지화 되는 호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행동하느냐이다.

단 몇 분의 시간이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올여름,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강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위험을 알리는 '미리 달는 경고'를 위해 24시간 멈추지 않고 하늘을 살필 것이다.



제39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  
침수된 아파트에서 주민 구조하는 119(신현중)

##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새로운 기준

폭염,  
이제는 생존을 위해  
대처해야 할 재난

지난해 여름, 충남의 한 축사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던 농민의 모습을 기억한다. 수십 년을 키워온 가축들이 뿔어내는 가쁜 숨소리 사이로, 그는 "예전엔 이 정도 더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름이 무섭다"고 말했다. 지난여름 우리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뜨거운 햇볕이 아니었다. 식지 않는 대지와 잠들지 못하는 밤,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후의 역습이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철 폭염은 '견뎌야 할 더위'였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해 대처해야 할 재난'이 됐다. 특히 작년은 기상청 관측 이래 여름철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될 만큼 고온 현상이 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던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전국적인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를 경험하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여름을 대비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충남의 상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충남권의 여름철 폭염일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1년 11.8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25년 27.3일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이어졌다. 온열질환자 수가 2021년 83명에서 2023년 205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전국 온열질환 사망자의 약 17%가 충남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매년 수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더해지며, 폭염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극심해지고 있는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여름부터 기존의 폭염특보 체계를 보완한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도입했다. 이 새로운 특보들은 단순히 기온 수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폭염 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값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이거나 일최고기온이 39℃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이어지는 3단계 폭염특보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알림 체계로 운영된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인체에 가해지는 열 부하와 그에 따른  
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므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인 ‘중단(Stop),  
이동(Move), 확인(Check)’을 실천해야 한다.  
필수업무가 아닌 야외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실내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열대야 주의보’는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에도 해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체적 피로와 수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하루  
이상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며, 대도시 및 해안·도서 지역은  
26℃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 된다.  
열대야는 독거 어르신이나 만성 질환자들  
에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 되면,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인근의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특보 체계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이다.

기상청이 보내는 이 신호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여름은 안전해질 수 있다.  
기후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새로운 특보 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받쳐주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탄소중립 시대, 기상정보가 이끄는 태양광의 미래

태양광 발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핵심축

기후위기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라는 무한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핵심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 환경에 따라 크게 '지상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형태로 많이 활용되는 지상 태양광은 산지, 농지 등 유휴 부지에 조성되어 설치 환경에 큰 제약이 없어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태양광 모듈 온도가 함께 상승하여 열 손실이 발생하고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나 댐 등의 유휴 수면에 조성되어 설치 환경에 제약이 있고, 물 위에 설치되어 수온에 의한 모듈 냉각 효과로 인한 열 손실이 적으며 양면형 패널을 통해 수면 반사광을 활용할 수 있어 지상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특징이 있다. 태양광 모듈에 도달하는 일사량과 대기의 온도는 물론이고 구름, 안개, 미세먼지, 강수 등 다양한 기상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에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면 전력 공급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과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지형효과(햇빛가림), 수면 반사 효과(수상태양광)와 같은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발전량이 결정되는 기상 의존적인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상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몇 시간 뒤 혹은 내일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전력 계통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강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상과 에너지를 융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상·환경 요인에 대한 통계·AI 분석,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한 기상관측자료와 예측정보는 공공 및 민간의 발전 사업자,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계통 안정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정보는 더 이상 일기예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의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 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상정보는 발전 효율을 높이고 운영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상 관측자료와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상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날씨를 읽는다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와 기상정보가 함께 만들어 갈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기대하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 기상·기후서비스 주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달라진 처서, 변화하는 계절의 기준

이제 절기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8월 하순에 속한 처서는 예로부터 여름이 지나가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였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꺾였다. 그러나 이제 처서를 비롯한 절기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2.7배였고, 열대야일수도 16.4일로 평년(6.6일)의 2.5배에 달했다. 1973년 이후 폭염일수는 역대 세 번째, 열대야일수는 네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다. 이는 단지 작년만의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며, 최근 10년간 폭염 발생일수와 열대야 발생일수를 살펴보면 각각 과거 10년보다 약 2.2배, 약 3배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여름도 무더위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폭염일수는 8.9일로 평년(4.1일)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2.8일)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도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날이 늘면서 국민의 건강과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위의 강도만큼 더위가 나타나는 시기 역시 달라지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간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의 폭염 시작일은 과거에 비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과거에는 주로 7월에 시작되던 폭염이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6월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종료 시기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열대야 또한 과거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폭염이 끝난 뒤에도 9월 상순까지 밤더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위의 시작은 앞당겨지고 끝은 늦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여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여름 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프랑스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폭염이 지속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40℃를 넘는 고온이 나타났다.

스페인 역시 7월 평균기온이 25.7℃로 2022년과 함께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했으며, 무르시아에서는 44.2℃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이른 시기에 시작해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폭염은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기후위기의 단면이다.

---

이에 기상청은 변화하는 폭염과 열대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넘어서는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온열질환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와 함께 야간의 높은 기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온열질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도입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이다. 이제 기상정보는 단지 수치적 정보만을 전달하거나 위험을 단편적으로 알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위험을 더욱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위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그동안 절기는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생활 속 지혜였다. 하지만 이제 계절의 변화 기준도, 변화에 따른 위험도 달라지고 있다.

처서가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안도감이 아닌 오늘 발표된 예보와 특보 확인이다. 매일의 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날씨와 계절의 변화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달라지는 계절 앞에서,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보와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날씨의 변화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6.3.3.~10.31.

### 호국보훈의 달 맞이 현충원 참배 및 묘역정비 사회공헌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6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방문하였다. 이 날 직원들은 현충탑을 찾아 참배와 헌화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겼으며, 묘역 주변을 정비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예정이다.





2026.6.1.~8.4.

유성구 협업 2026년

「꿈나무 과학멘토 · 우리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유성구와 협력하여 미래세대의  
기후변화과학 이해증진을 위한 ‘꿈나무 과학멘토’와  
‘우리마을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꿈나무 과학멘토는 초등학생 347명 대상으로 6월 17일  
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기후변화의 원인  
및 탄소중립 교육과 ‘지구를 지키는 기후시계’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마을 스탬프투어에서는  
초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VR 콘텐츠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체험과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5월 29일  
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상 · 기후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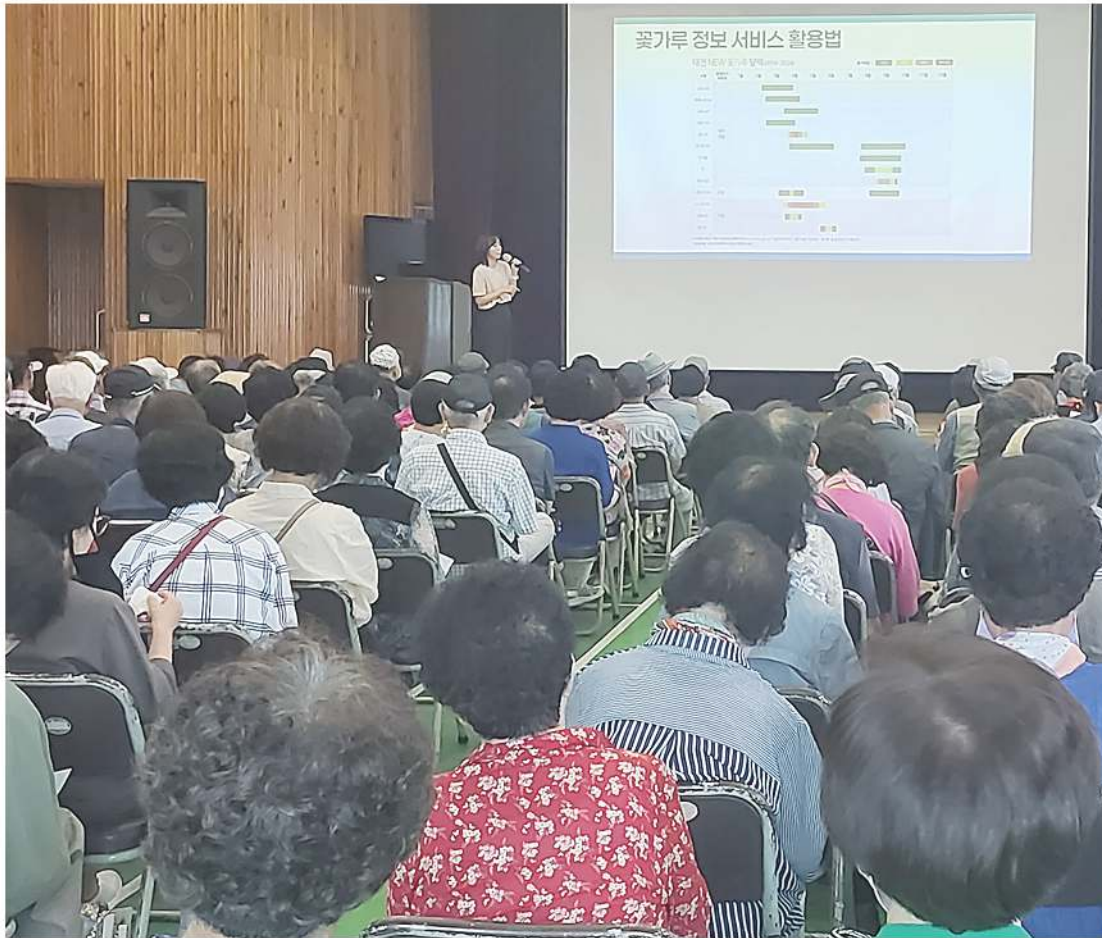


2026.6.9.~7.21.

## 여름철 폭염 영향예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니어 날씨 씨앗 스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재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정보 및 영향예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내 평생교육원(청춘학교)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는 기상 정보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날씨 씨앗 스쿨’을 운영하였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폭염·호우 등 여름철 위험기상 대응방법과 함께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취약계층이 기상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6.9.~7.21.

##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어르신 대상 기후변화과학 교육」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관과 협업하여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운영하였다. 총 7회에 걸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및 생활지원사 등 약 72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정의 및 대응요령, 호흡기 질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후 건강정보를 결합한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기후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2026.6.10., 6.16.

###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 교실 「움직이는 기상관측소」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지역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차량과 함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체험교실 「움직이는 기상관측소」를 운영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문 기상관측장비를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기상청 실무자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며 관측원리와 기상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이번 체험교실이 우리 학생들에게 기상청 업무에 대한 흥미를 더하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넓히는 진로 탐구의 기회기 되었기를 기대한다.



2026.6.12., 6.20.

##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충남교육청 권역별 「상상이룸 나눔마당」 체험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상상이룸 나눔마당' 행사에 참여하였다. 충남교육청은 충남 주요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학생들과 과학에 꿈을 키워줄 다양한 체험, 학습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충남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외선지수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준비하여 부여 및 태안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 대한 지역 홍보와 여름철 자외선 대응 방법 등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6.6.13., 8.28.

## 「기상·기후과학 진로직업 및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기후과학 이해확산을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환경교육주간(6.5.~6.11.)을 맞아 개최한 ‘제8회 세종환경교육한마당’ (6.13.)에서 ‘나만의 탄소중립 케링만들기’ 체험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주관 ‘진로·직업체험 10년 진로컨퍼런스’ (8.28.)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기상청 업무 및 기상기후 분야 진로·직업정보 등을 소개하여 미래 기상기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26.6.15.

## 2026년 상반기 우수예보관 선정 및 포상

대전지방기상청은 현업예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고를 격려하여 업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 우수예보관’을 선정하였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위험기상 대응 및 정확한 예·특보 운영에 애쓴 우수예보관에게 대전지방기상청장상과 부상(상품권)을 수여하였다. 이번 포상을 계기로 예보관들의 업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6.18.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기후데이터와 타 분야와의 융합 활용 증진을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지방기상청, 국립공주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및 패츠(paech)에서 각 기관의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토의를 통해 관·학·산 간의 현장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6.6.22., 8.6.

## 대전지방기상청 「사이버보안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사이버보안 교육은 최근 보안감사 지적사례와 해킹메일 대응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요 법·제도와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 예방수칙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역량을 높여, 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6.24.

## 대전 · 세종 · 충남 기후협의체 「기후위기 대응 공동포럼」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6월 24일 세종시 소담동 행복누리센터에서 ‘2026년 대전 · 세종 · 충남 기후협의체 기후위기 대응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달라지는 기후, 함께 준비하는 충청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협의체 관계자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등 82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지역 기후위기 대응 협업 사례 등 4개 주제발표와 함께 ‘기후정보 활용 방안과 충청권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정보 활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6.29.~8.9.

### **보령기상관측소 전산실 이전 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령기상관측소의 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건물자산 반납을 위하여 건물 내에 있는 전산실을 관측장소 내 외장함체로 이전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2026.6.30.

## 충청남도 강수량계 자료수집기 교체 사업 설명회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의 호우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해상도 향상을 위해 2026년 대전시와 세종시 강수량계 자료수집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15개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강수량계 자료수집기 교체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2026.6.30., 7.31.

##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우수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충남 창업경진대회(6.30.)에서는 기상데이터와 오픈마켓 판매데이터를 결합한 ‘외부 환경 반영 오픈 마켓 손익 예측 및 적자 사전경고 AI플랫폼’을 제안한 ‘투켓로컬’팀, 대전 창업경진대회(7.31.)에서는 기상데이터 및 대전의 문화·관광·축제 등 지역공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새로운 지역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를 발굴하는 ‘Daejeon IP foundary’를 제안한 ‘우린 할 수 있다’ 팀이 각각 대전지방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2026.7.~8.

## 폭염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의 특보 신설 등 폭염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폭염 취약지역(대전, 세종, 청양, 공주)을 대상으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특히 특보 운영 기간 중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에서는 '우리동네 구석구석(골목길, 옥상, 공원) 폭염 관측 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차량과 휴대용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등을 활용해 집중 관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집한 관측자료는 실제 도심 환경과 표준화된 관측환경 간의 기온 차이를 규명하고, 폭염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위한 영향예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7.7.~7.9.

## 호우 위험기상 대응 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기상 감시를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고층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두 차례 진행된 이번 특별관측은 정해진 시간마다 존데(Sonde)를 비양해 해당 지역 대기의 연직 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측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예보관의 예·특보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고층관측을 통해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위험기상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7.23.~7.26.

##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여름방학기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3일~26일까지 어린이 기상학교를 운영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홍성기상대 등 지역 관계기관을 탐방하였다.

특히, tbn충남교통방송에 방문하여 기상정보와 도로교통에 대해 배워보며 여름철 기상·기후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7월 25일에는 지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천문우주를 주제로 과학엠버서더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26.7.24.~8.7.

## 2026여름방학기상·기후 체험교실 「여기 어때」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과학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여기어때’를 운영하였다. 총 9회에 걸쳐 14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과학 강의, 북극곰과 빙하 만들기, 기상캐스터 체험,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 실험’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후위기 대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026.7.27.

## 2026년 기상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전지방기상청은 ‘2026년 기상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대전지방기상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43번 국도의 도로살얼음 취약구간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협업 성과다. 기상관측차량의 정밀 노면센서로 수집한 관측자료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전처리·시각화·분석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구간을 발굴 및 공유했으며, 이 결과는 향후 43번 국도의 도로살얼음 관련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26.7.29.

## 대전지방기상청 폭염 피해 예방「해피해피 캠페인」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막고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알리기 위해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폭염 취약계층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대전연탄은행과 함께 생수 나눔 활동과 폭염중대경보 발효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중단-이동-확인) 등 행동요령을 알렸다.

이번 활동으로 기상청의 다양한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기본적인 폭염예방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으로 올 여름철 기상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길 기대한다.



2026.7.31.

## 대전지방기상청 「청렴 가치오름 계단길」 조성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청렴 가치오름 계단길’을 조성하였다. 계단을 이용하는 동안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 문구와 건강 관련 메시지를 계단에 배치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참여와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6.8.4.

### 주거취약계층 대상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대전지방기상청은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전도시공사, 충청권질병대응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소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폭염 영향예보와 온열질환 대응요령, 신규 정책(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폭염 피해 예방 물품(생수, 쿨토시, 부채)를 배부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기상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용적인 기상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기상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8.11.~8.16.

## 지역 대학(공주대 · 혜전대)협업, 기상과학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역 기상과학 전문대학인 공주대 대기과학과와 협업을 통해 기상업무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대기과학 전문교육을 눈높이에 맞춰 수강하고 직접 대학에 방문하여 레원존데 비양, 레이더 차량 등 대학 현장을 견학하였다. 또한, 혜전대와 지역민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8월 15일~16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가족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2026.8.12.

## 대전지방기상청 찾아오는 문화교실(2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오는 문화교실(2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레진아트 공예를 체험하며 ‘나만의 위리스톤 키링’을 직접 제작했다. 직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6.8.20.

## 「2026년 을지연습」 관-군 연합 · 합동훈련을 위한 기상관측차량 관측 지원 훈련

대전지방기상청은 ‘2026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2026 UFS 이동형 기상장비 전개 연합 · 합동 훈련’에 기상관측차량과 휴대형AWS를 동원하여 참여하였다. 이번 훈련으로 군 작전 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측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하고, 지상관측에 고층관측까지 더해 한층 입체적이고 정밀한 기상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앞으로 기상청은 군과 굳건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기상 재해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6

June

일최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6.17. 홍성 2위 33℃

7

July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7.14. 천안 4위 25.8℃

7.21. 부여 4위 26.3℃

7.26. 보령 3위 27.4℃, 서산 5위 26.4℃

7.28. 홍성 2위 26.8℃

10분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7. 7. 금산 1위 21.5mm, 홍성 4위 16.8mm

7. 9. 세종 4위 16.2mm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7. 7. 금산 4위 58.4mm

7. 9. 천안 1위 70.8mm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7. 9. 천안 4위 175.2mm





###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8. 5. 홍성 3위 31.1℃, 세종 3위 30.5℃, 서산 5위 30.6℃, 보령 5위 31.1℃
- 8. 6. 홍성 2위 31.4℃, 세종 2위 30.7℃, 서산 4위 30.6℃, 보령 4위 31.1℃, 금산 5위 30.1℃
- 8. 7. 서산 1위 31.4℃, 홍성 1위 31.5℃, 보령 1위 32.5℃, 세종 1위 31.1℃, 금산 4위 30.2℃
- 8. 8. 보령 2위 31.4℃

###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8. 3. 보령 3위 37.3℃, 세종 3위 36.1℃
- 8. 4. 홍성 3위 37.1℃, 보령 4위 37.0℃, 세종 4위 36.0℃
- 8. 5. 보령 5위 36.7℃
- 8. 6. 홍성 2위 37.2℃
- 8. 7. 서산 1위 37.2℃, 홍성 1위 37.3℃, 보령 1위 38.4℃, 세종 1위 37.0℃, 금산 5위 37.6℃
- 8. 8. 서산 2위 37.1℃, 보령 2위 38.1℃, 세종 2위 36.8℃

###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8. 1. 서산 1위 27.1℃, 홍성 3위 27.2℃
- 8. 5. 금산 2위 26.5℃, 세종 3위 26.6℃
- 8. 6. 부여 2위 27.0℃, 세종 2위 26.6℃
- 8. 8. 보령 2위 27.7℃

## 동물계절

### 매미 초성

6.24. (작년대비 8일 빠름, 평년대비 15일 빠름)

※ 동물계절 · 기후계절 관측은 대전지점 자료 제공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 민원사무의 종류

###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6. 8. 현재)

####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 2. AWS(40소)

정림(378), 오월도(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